# 9명 온 행사 400만원·400명 참석엔 100만원

도감사위 '마을 전승의례 지원 사업' 감사 결과 지원 명목 유사한데 보조금 규모 최대 30배 차 "보조금 지급, 합리적 기준 마련해 일관성 있어야"

제주지역 각 마을 전승의례에 지 원된 제사상 상차림 비용 등 보조 금 지급 규모가 각 마을별로 최대 30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 됐다.

사업 감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.

감사위에 따르면 각 읍면동은 지 난 2017년 제정된 '제주특별자치도 마을 전승의례 지원 조례'에 따라

야시장 매대 추가 모집

서귀포매일올레상점가진흥사업협

동조합은 이달 19일까지 서귀포매

일올레시장 야시장 매대 운영자를

추가 모집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.

월 야시장 매대 운영자 모집 선정

후 비어있던 4개 매대다.

추가 모집 매대 수는 지난해 12

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서귀포

시에 거주하는 자로, 제출서류를

갖춰 서귀포매일올레시장상가조합

사무실로 방문 신청하거나 이메일

로 접수하면 된다. 운영자는 서류

평가와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선 발한다. 모집 공고와 신청 방법은

서귀포시 홈페이지(일반공고)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. 문의 762-

마을제, 해신제, 포제, 당제, 당굿 등 각 마을 공동체가 주관하는 의 례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.

당시 조례를 발의한 도의원은 "마을 전승의례에 대한 지원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와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내용의 마을 전승 의례 지원 지원이 이뤄지다보니 마을간 형평 성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"며 제정 이유를 밝혔다.

> 이 조례에 따라 지난 5년간 582 건의 마을 의례에 보조금이 지원됐

다. 총 지원 금액은 7억9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.

그러나 '마을간 형평성 논란'을 해소하기 위한 조례 제정 취지와 달리 일부 마을 전승 의례에는 보 조금이 지원되지 않았다. 보조금을 지원 받지 못한 마을 전승의례는 84건이다.

보조금 지원 규모도 마을별로 천 차만별이었다. 도감사위 조사 결과 마을 전승 의례에 지원한 경비 명 목은 제사상 음식과 참석자 식사 준비 등으로 대개 유사했지만 보조 금 지원 규모는 참석 인원과 상관 없이 각 마을별로 적게는 20만원에 서, 많게는 600만원에 이르는 등 최

대 30배가량 차이가 나고 있었다. 실례로 참석 인원이 9명에 불과 했던 모 마을 전승 의례에는 400만 원이 지원된 반면, 다른 마을 전승 의례에는 이보다 40배 이상 많은 413명이 참석했는데도 예산은 1/4 인 100만원을 지원 받았다.

도감사위는 "마을 인구, 경제적 여건 등은 각 마을별로 다양한 것 은 맞지만 포제 등 마을 전승의례 는 모든 읍면동에서 유사하게 진행 되는 상황"이라며 "이런 상황을 감 안해 지원대상, 지원금액 등 합리적 인 기준을 마련해 일관성 있게 보 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" 고 제도개선을 요구했다. 이상민기자



## "함께 가꾸는 건강한 숲"… 심고 나눠주고 서귀포시, 오는 19·22일 나무 심기·나눔 행사

서귀포시는 제80회 식목일을 앞두 재해 밀원숲을 조성했다. 고 시민이 함께 가꾸고 누리는 건 강숲 조성을 위해 나무심기와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진행한다.

나무심기는 이달 19일 서귀포시 색달동(산 4번지 일대)에서 초등학 교, 지역주민, 자생단체, 양봉단체, 임업 종사자 등이 참여해 때죽나무 800본을 심을 예정이다. 때죽나무 는 꿀벌의 먹이가 되는 밀원수종의 하나로, 나무심기를 통해 기후변화 로 사라져가는 꿀벌들의 생육환경 을 개선하고 산림생태계의 공익적 기능 향상, 양봉산업 활성화에 기 여하게 된다.

시는 지난해에는 안덕면 상창리 일대에 황칠나무 500여본을 심었 다. 수망리 민악 일대 17ha에는 때 죽나무와 쉬나무 등 6000여본을 식

시는 또 생활 속 나무심기 문화 확산을 위한 나무나눠주기 행사도 이달 22일 오전 9시부터 서귀포시 청 제2청사에서 마련한다.

시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유실수 (자두, 블루베리, 체리, 복숭아)와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실내식물(장 미허브, 커피) 1만2000본을 준비해 현장 선착순으로 1인 3본(유실수 2 본, 실내식물 1본)을 나눠줄 예정 이다. 특히 올해는 산림청 산하 서 부지방산림청과 난대아열대산림연 구소가 참여해 제2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황칠나무 1본을 추가로 배부할 예정이다.

또 5개 읍면에서도 자체 계획에 따라 읍면사무소 등에서 나무나눠 주기에 나설 예정이다. 문미숙기자

### 전통시장・상점가에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

#### 제주시, 사업비 2억여원 투입

제주시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 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 화하기 위해 올해 시장매니저 지원, 공동마케팅 등 시장경영패키지 지 업 내용은 시장매니저 지원, 공동 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.

올해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 경영자문 등이다. 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, 리 상점가 등 6개 전통시장과 상점 가가 선정됐다. 총 사업비는 2억 1100만원(국비 1억6900만원, 도비

2100만원, 자부담 2100만원)이다. 선정된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상

인회는 지역 특성과 상권 환경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 립하고, 직접 수행할 예정이다. 사 마케팅, 온라인 마케팅, 상인교육,

시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상 지난해 제주시의 공모로 동문공설 인회와 협력, 상인조직 역량 강화 시장, 서문공설시장, 보성시장, 도 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 남시장, 동문재래시장, 누웨마루거 원책을 마련 중이다. 또 내년 사업 공모에 더 많은 전통시장이 선정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. 문미숙기자



비 내리는 대학 캠퍼스 봄비가 내린 4일 제주대학교 캠퍼스에서 개학을 맞은 학생들이 우산을 쓰고 걸어가고 있다

#### 공공시설 활용한 원격 근무 확대

행정시 6급 이하·중앙 부처 도 '어나더플러스'로 활력 기대

대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.

기존 사무실이 아닌 도내 공공시설 중점을 두고 있다. 참여 대상은 기 관람도 할 수 있다. 에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최초로 시 지난해 도입했다. 작년에 총 223명 행한 공간 혁신 시책 '어나더 오피 이 이용한 결과 응답자의 99%가 만 앙 부처 공무원까지 확대했다. 스(Another Office)'를 중앙 부 족 또는 매우 만족했다고 답했다. 처와 행정시 공무원까지 참여하는 업무 효율성 증대(45%), 심리적 안 귀포시 4개소 등 총 16개소(신규 6 경우엔 전자 결재와 각종 관련 프 '어나더플러스(Another+)'로 확 정(26%), 출퇴근 편의(24%) 등을 주된 만족 이유로 꼽았다.

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'어나더 플러스'는 기존 '어나더 오피스'를 발전시켜 출퇴근 시간 단축, 업무 집중도 향상, 부서 간 협업 강화에 존 도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에서 행정시 소속 6급 이하 공무원과 중 드 컴퓨터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해

개소)로 지속적으로 늘려 나갈 계 획이다. 제주도립미술관에서는 점

리모델링의 선두주자

심시간을 이용한 전시 관람이 가능 하고, 서귀포 월드컵경기장 인근 서귀포시청 내 어나더플러스 공간

강희만기자

도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클라우 개인 노트북으로도 행정망 접속이 운영 장소는 제주시 12개소, 서 가능하도록 개선했다. 또한 필요한 로그램이 탑재된 행정 업무용 노트 북을 별도 지원한다. 진선희기자

# 우리가족 건강음료, 설탕을 넣지 않고 고소하고 부드러운 콩 그대로의 맛을 살린 절대 모방할수 없는 맛 제주도총판 대표 윤 봉실 삼육식품 www.sahmyook.co.kr 064)757-1416





